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및 사례

2013. 11. 18

해외경제연구소 산업투자조사실
이 미 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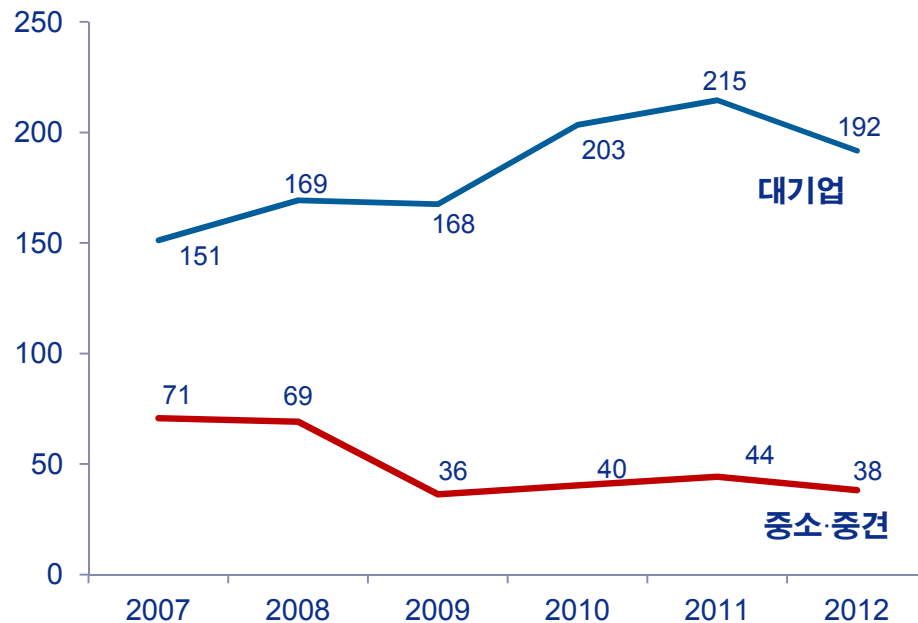
I.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투자 동향

II. 해외진출 전략 및 고려 사항

I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투자 동향

- 2012년 기준 우리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230억불, 신규투자법인 수는 2,464개이며
이중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금액의 17%, 신규 투자법인수의 87%를 차지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투자 지역은 아시아가 55~57% 비중으로 가장 높으며 북미는 18~19% 수준을 유지,
중남미의 투자비중이 높아지고 있음('09: 9% → '1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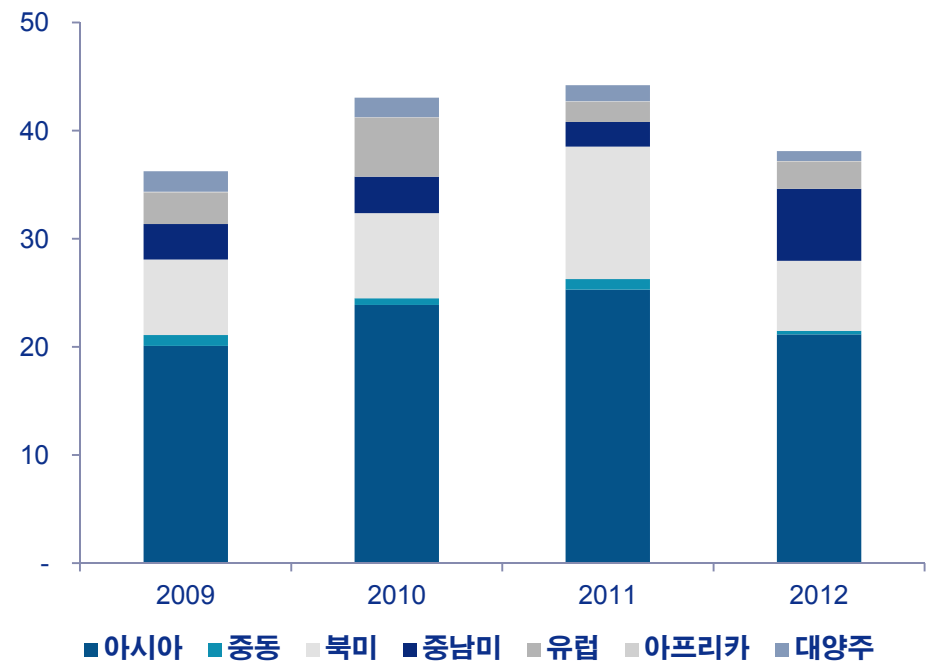
해외직접투자 금액(억불)



중소·중견
기업비중

32% 29% 18% 17% 17% 17%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지역 및 투자비(억불)



아시아비중

55% 55% 57% 56%

I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투자 동향

□ 신규법인수는 제조업(37.7%), 도소매업(24.2%) 중심이며, 투자금액은 제조업(48.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1.3%), 운수업(8.7%) 순

업종별 신규법인수

	2009	2010	2011	2012	Total	비중
농업, 임업, 어업	21	36	35	12	104	1.1%
광업	42	23	26	21	112	1.2%
제조업	764	977	936	767	3,444	37.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5	8	9	16	48	0.5%
건설업	133	122	119	115	489	5.4%
도소매업	483	618	565	544	2,210	24.2%
운수업	61	58	40	47	206	2.3%
숙박 및 음식점업	151	132	166	139	588	6.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1	105	124	115	455	5.0%
금융 및 보험업	24	30	34	26	114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81	82	58	62	283	3.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2	117	123	102	454	5.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46	43	39	35	163	1.8%
교육서비스업	41	43	35	38	157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3	18	20	21	92	1.0%
기타	73	70	1	73	217	2.4%
Total	2,191	2,482	2,330	2,133	9,13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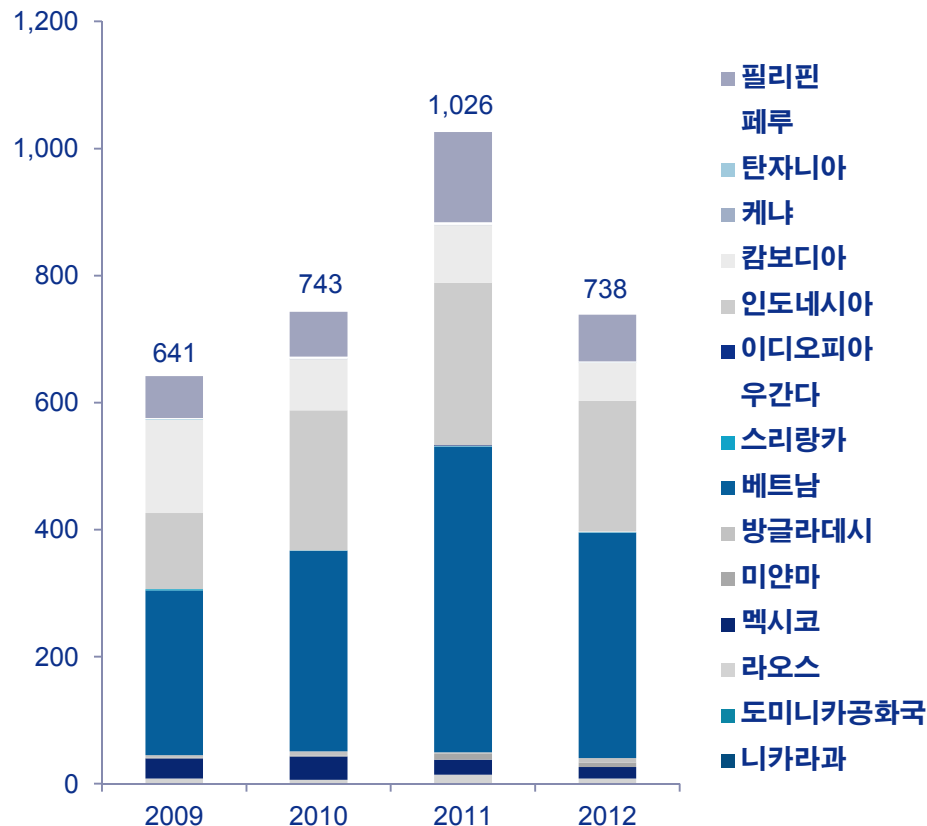
업종별 투자현황 (투자금액, 억불)

	2009	2010	2011	2012	Total	비중
농업, 임업, 어업	0.4	0.5	0.5	0.5	1.9	1.2%
광업	1.8	1.3	2.6	1.7	7.4	4.7%
제조업	15.9	19.6	22.8	18.3	76.6	48.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9	0.6	0.9	0.8	1.9	1.2%
건설업	1.6	1.5	0.9	1.4	3.2	2.0%
도소매업	2.8	3.8	3.3	3.9	5.4	3.4%
운수업	2.4	1.0	0.2	0.3	13.8	8.7%
숙박 및 음식점업	0.9	0.9	0.8	0.8	3.9	2.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	1.9	1.4	1.4	3.4	2.1%
금융 및 보험업	0.8	1.2	3.9	0.6	5.8	3.6%
부동산업 및 임대업	5.2	3.7	3.9	5.1	6.5	4.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	1.7	1.9	2.3	17.9	1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2	0.2	0.2	0.1	6.9	4.3%
교육서비스업	0.2	0.2	0.2	0.2	0.7	0.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0.9	1.0	0.3	0.4	0.8	0.5%
기타	0.2	1.2	0.5	0.3	2.2	1.4%
Total	36.3	40.3	44.3	38.1	159.0	100.0%

I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투자 동향

- Post China 16개국 2009~2012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베트남이 1,411백만불(45%)로 가장 높으며 인도네시아 803백만불(26%), 캄보디아 378백만불(12%), 필리핀 352백만불(11%) 순
- Post China 16개국 2009~2012년 해외직접투자 목적은 현지시장진출이 1,349백만불(43%), 저임활용 436백만불(13.8%), 수출촉진 768백만불(24.1%) 순

Post China 16개국 투자금액(백만불)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PC 16개국 투자목적별 투자금액(백만불)

	2009	2010	2011	2012	총합계	비중
현지시장진출	347.7	351.0	388.1	261.8	1,348.6	42.8%
저임활용						
베트남	80.6	93.2	146.4	115.9	436.1	13.8%
인도네시아	20.2	30.7	70.5	57.1	178.5	5.7%
캄보디아	27.9	11.4	17.0	23.1	79.4	2.5%
필리핀	4.4	6.1	26.2	10.6	47.4	1.5%
방글라데시	1.8	3.4	1.6	2.1	8.8	0.3%
멕시코	1.5	4.5	1.5		7.4	0.2%
미얀마			3.6	2.1	5.7	0.2%
스리랑카			0.2	0.4	0.6	0.0%
라오스	0.0	0.1			0.1	0.0%
이디오피아			0.1		0.1	0.0%
저임활용 Total	136.4	149.4	266.9	211.4	764.0	24.3%
수출촉진	92.7	178.9	289.9	196.2	757.6	24.1%
자원개발	48.4	38.9	62.7	57.6	207.7	6.6%
제3국진출	12.3	17.7	4.0	6.5	40.5	1.3%
보호무역타개	3.1	3.0	0.6	2.2	8.8	0.3%
선진기술도입	0.4	0.0	0.4	-	0.8	0.0%
기타	0.6	4.1	13.3	2.7	20.7	0.7%
총합계	641.5	743.0	1,026.0	738.3	3,148.8	100%

I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투자 동향

- 투자형태별 신규법인 비중은 단독투자가 5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합작투자 28%, 공동투자 18% 순
- 베트남/라오스/우간다 등은 단독투자 비중이 높으며 이디오피아/스리랑카 등은 합작투자 비중이 높음

Post China 16개국 투자형태별 신규법인 수

		2009	2010	2011	2012	총합계	비중
니카라과	단독투자	1	1		-	2	100%
도미니카공화국	단독투자		1		-	1	100%
라오스	공동투자	-	-	1	-	1	4%
	단독투자	4	4	4	5	17	68%
	합작투자	2	2	-	3	7	28%
멕시코	공동투자	-	1	4	1	6	19%
	단독투자	3	6	6	1	16	50%
	합작투자	3	3	3	1	10	31%
미얀마	공동투자			1	3	4	24%
	단독투자	-	1	2	4	7	41%
	합작투자	1	-	4	1	6	35%
방글라데시	공동투자	2	3	2	2	9	26%
	단독투자	4	3	3	4	14	40%
	합작투자	2	3	3	4	12	34%
베트남	공동투자	17	21	22	28	88	13%
	단독투자	105	154	135	125	519	74%
	합작투자	27	22	26	21	96	14%
스리랑카	공동투자		1			1	10%
	단독투자	2	1	2	-	5	50%
	합작투자	2			2	4	40%

		2009	2010	2011	2012	총합계	비중
우간다	공동투자			1		1	25%
	단독투자			1	2	3	75%
이디오피아	공동투자			1		1	50%
	합작투자			1		1	50%
인도네시아	공동투자	20	26	44	32	122	33%
	단독투자	21	33	53	23	130	35%
	합작투자	29	34	35	21	119	32%
캄보디아	공동투자	2	4	8	7	21	11%
	단독투자	19	13	27	25	84	42%
	합작투자	18	49	13	13	93	47%
탄자니아	공동투자		1			1	25%
	합작투자	2			1	3	75%
필리핀	공동투자	6	11	20	12	49	19%
	단독투자	28	24	24	22	98	38%
	합작투자	26	29	33	24	112	43%
총합계		346	451	479	387	1,663	

I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투자 동향

- 설립법인 형태는 신설법인 설립 77%, 기존법인 지분인수 23%로 신설법인 비중이 매우 높음
 - 좋은 기업이 많지 않고, 복잡한 규제 또는 정부 관계, 투명성 부족 등으로 신설법인 설립 선호

Post China 16개국 설립법인형태 및 투자비(백만불)

신설법인설립	2009	2010	2011	2012	총합계
니카라과	9.3	2.6	2.6	10.6	25.1
도미니카공화국		0.1		0.0	0.1
라오스	29.0	15.4	3.3	25.6	73.3
멕시코	55.0	63.5	51.5	140.7	310.7
미얀마	349.4	196.4	419.8	313.4	1,279.0
방글라데시	4.1	43.8	9.6	11.4	68.9
베트남	566.3	742.8	955.3	870.9	3,135.3
스리랑카	2.1	0.5	1.3	0.8	4.8
우간다			0.6	0.9	1.5
이디오피아			0.1	0.1	0.2
인도네시아	255.7	779.3	1,016.5	610.6	2,662.1
캄보디아	131.2	100.0	82.9	83.6	397.7
케냐	0.1	0.1	1.0	0.3	1.5
탄자니아	1.0	0.3		0.2	1.6
페루	39.4	48.0	51.2	54.0	192.4
필리핀	93.3	118.8	195.8	74.2	482.1
Total	1,535.8	2,111.7	2,791.6	2,197.3	8,636.3

기존법인 지분인수	2009	2010	2011	2012	총합계
니카라과	0.8				0.8
라오스	2.3	0.1	10.6	1.1	14.1
멕시코	0.1	0.1	97.1	244.5	341.9
미얀마	1.5	1.0	3.1	2.0	7.6
방글라데시	1.4	0.9	0.1	1.1	3.6
베트남	43.6	102.7	94.8	56.6	297.7
스리랑카	0.1	0.0		-	0.2
인도네시아	90.9	100.3	229.1	353.8	774.2
캄보디아	60.7	20.8	21.3	7.1	110.0
페루	0.7	0.2	0.1	0.1	1.1
필리핀	24.8	107.9	6.8	857.7	997.2
Total	226.9	334.1	463.1	1,524.0	2,548.1

I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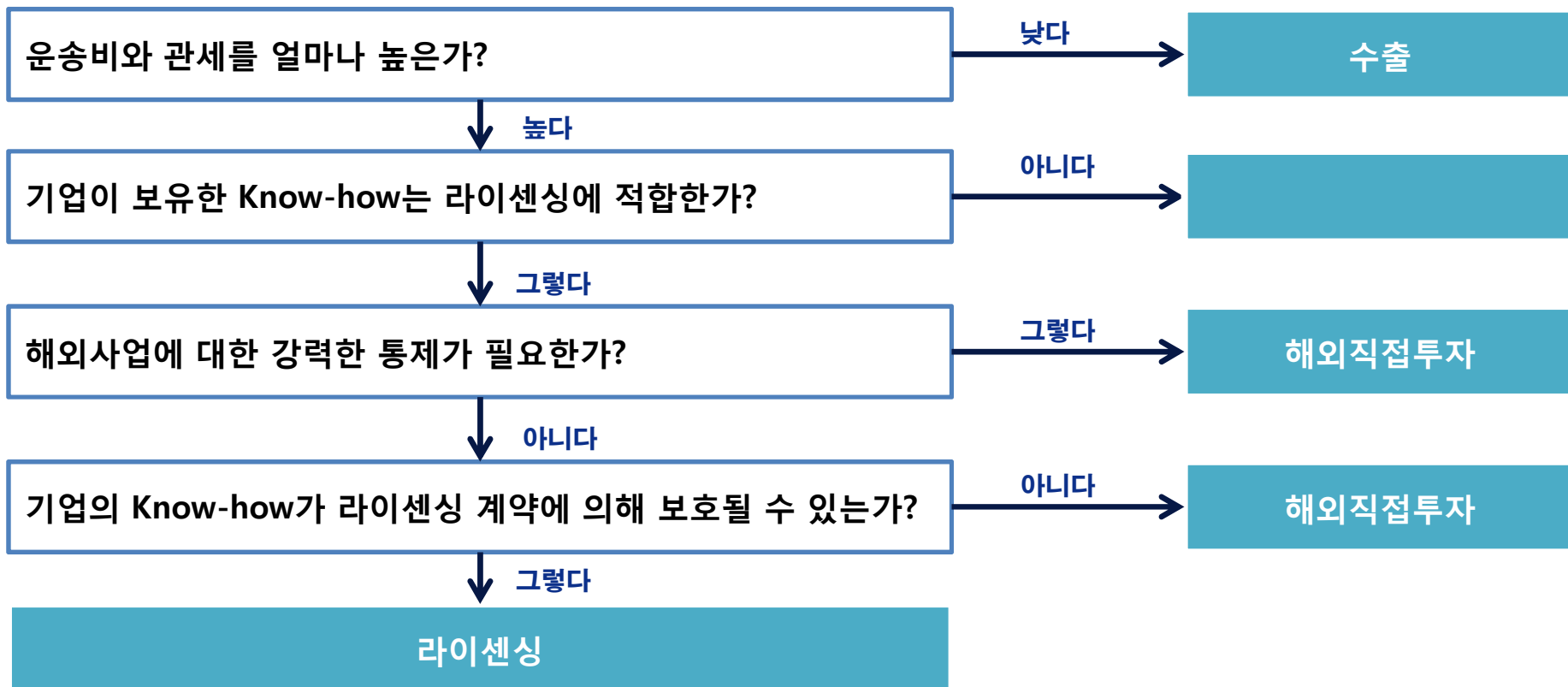
□ Post China 16개국중 투자금액이 큰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제조업 비중(37~69%)이 가장 높으며 캄보디아는 부동산 및 임대업(36%), 제조업(30%) 순

Post China 16개국중 주요 국가 업종별 투자금액(2009~2012)

베트남	투자금액 (백만불)	비중	인니	투자금액 (백만불)	비중	캄보디아	투자금액(백 만불)	비중	필리핀	투자금액(백 만불)	비중
제조업	973.9	69%	제조업	531.2	6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5.5	36%	제조업	128.7	3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7.9	10%	광업	103.6	13%	제조업	114.2	30%	부동산업 및 임대업	55.7	16%
건설업	90.0	6%	도매 및 소 매업	67.3	8%	도매 및 소매 업	43.2	11%	건설업	46.0	13%
도매 및 소매업	78.3	6%	농업, 임업 및 어업	45.9	6%	건설업	27.6	7%	숙박 및 음식 점업	41.7	1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4.2	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5.2	2%	기타	57.3	15%	도매 및 소매 업	18.8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1.2	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	11.1	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13.4	4%
숙박 및 음식점업	20.7	1%	숙박 및 음 식점업	9.1	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0	4%
광업	18.4	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 비스업	8.9	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	10.1	3%
기타	26.1	2%	기타	10.8	1%				기타	24.4	7%
Total	1,410.8		Total	803.1		Total	377.7	100%	Total	351.8	100%

II 해외진출 전략 및 고려 사항

해외진출 전략의 선택



해외직접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공급요소	수요요소	정치요소
생산비용	고객 접근	무역장벽 회피
물류	마케팅 우위	경제개발 우대 조치
자원가용성	경쟁우위 개발	
기술 접근	고객이동성	

Ⅱ 해외진출 전략 및 고려 사항

해외시장 진출 방법별 장단점

방법	장점	단점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낮은 재무 위험 • 점진적인 시장 진입이 가능 • 현지 시장에 대한 지식 습득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취약 • 물류의 복잡성 • 유통업체와 충돌 가능성
라이선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재무 위험 • 시장 잠재력을 평가함에 있어 저비용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회피 • 라이선싱으로부터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된 시장 기회 및 이익 • 라이선싱에 대한 의존성 • 라이선싱과 충돌 가능성 • 미래의 경쟁자를 만들 가능성
프랜차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재무위험 • 시장 잠재력을 평가함에 있어 저비용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회피 • 라이선싱 보다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짐 • 프랜차이즈로부터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된 시장 기회 및 이익 • 프랜차이즈에 대한 의존성 • 프랜차이즈와의 충돌 가능성 • 미래의 경쟁자를 만들 가능성
계약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재무 위험 •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최소화 • 가치사슬상 다른 부분에 회사의 자원을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의 미약(품질, 납품 일정 등에 영향) • 잠재적 학습효과의 감소 • 홍보 문제
해외직접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수익 잠재성 • 운영 통제의 유지 • 현지 시장에 대한 지식 습득 • 관세 및 비관세 장벽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자금 및 경영 투자의 필요성 • 높은 정치적 위험에 노출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에 취약 • 관리의 복잡성

해외진출시 입지 결정의 고려 사항

국가 관련 문제

- 자원 가용성과 비용
- 인프라
- 원산지 마케팅 효과 (Country of origin marketing effect)

제품 관련 문제

- 중량대비 가치 비율(Value to weight ratio)
- 생산기술
- 고객 반응의 상대적 중요성

정부 정책

- 정치적 프로세스의 안정성
- 국가의 무역 정책
- 경제 개발 인센티브
- 자유무역 지대의 존재

감사합니다.